

정기지표

Kstat Report

2020년 8월 20일

케이스탯 2020년 8월 정기지표
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

- '올바른 방향' 50% vs '잘못된 방향' 50%로 팽팽
-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,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평가 하락

경제 방향성 평가

- 대한민국 경제, '잘못된 방향' 60%

정부 신뢰도

- 정부 '신뢰 안한다' 53%, 부정평가 우세로 역전

정부정책 만족도

- 정부정책 '만족 않는다' 여론 더 높아져

사회통합성 평가

- 우리 사회 '분열됐다' 82%, 부정평가 강세 지속

개인 행복도

- 어제 하루 '걱정 많았다' 54%, 7월과 동일

계층상승 가능성 평가

- 개인 노력으로 계층상승, '불가능하다' 63%

• • • • 일러두기

- ❖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, 세부항목의 합이 100%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.
 - ❖ 중복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
 - ❖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.
 - ❖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.
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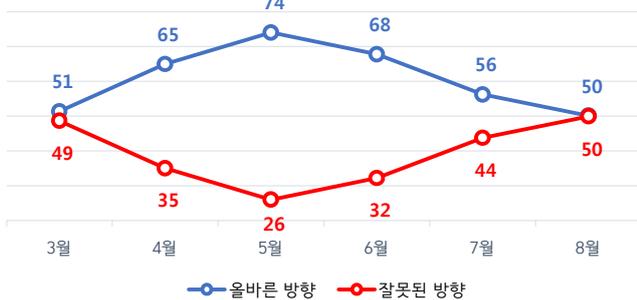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

※ '올바른 방향' 50% vs '잘못된 방향' 50%로 팽팽

- ▶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전반적 방향성에 대해 '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' 50% vs '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' 50%로 팽팽히 맞서는 양상을 보임
- ▶ 5월을 기점으로 '올바른 방향'이라는 의견이 하락세를 보이는데, 8월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짐
- ▶ '올바른 방향'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△30대, 40대, 50대 △진보층 △호남 △블루칼라, 화이트칼라 등임
- ▶ '잘못된 방향'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△18~20대, 60대이상 △보수층 △서울, 인천.경기, 충청, TK △자영업, 주부, 학생, 은퇴.무직 계층 등임
- ▶ 7월에 '올바른 방향'이라고 응답했던 계층 중에서 '잘못된 방향'으로 이동한 계층은 △중도층 △서울, 인천.경기, 충청, PK △주부, 은퇴.무직 계층 등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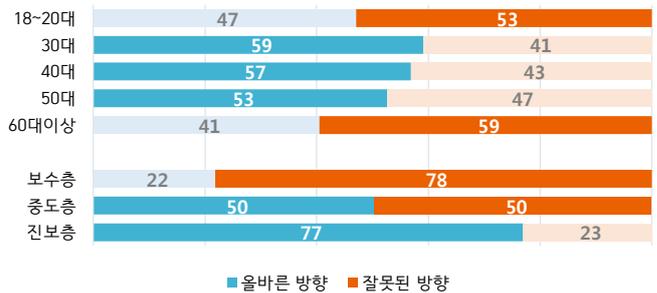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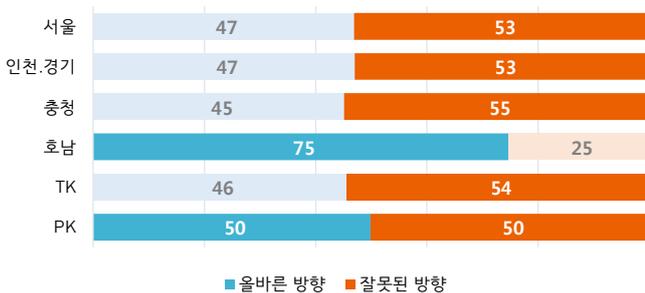
8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: 연령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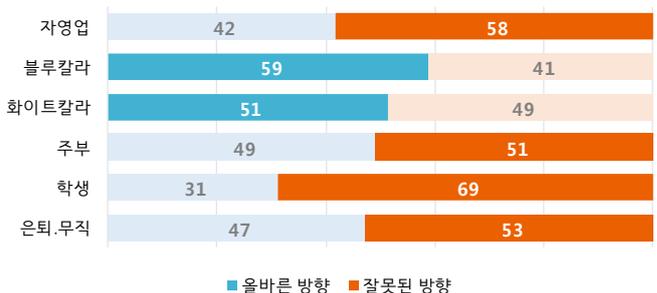
8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8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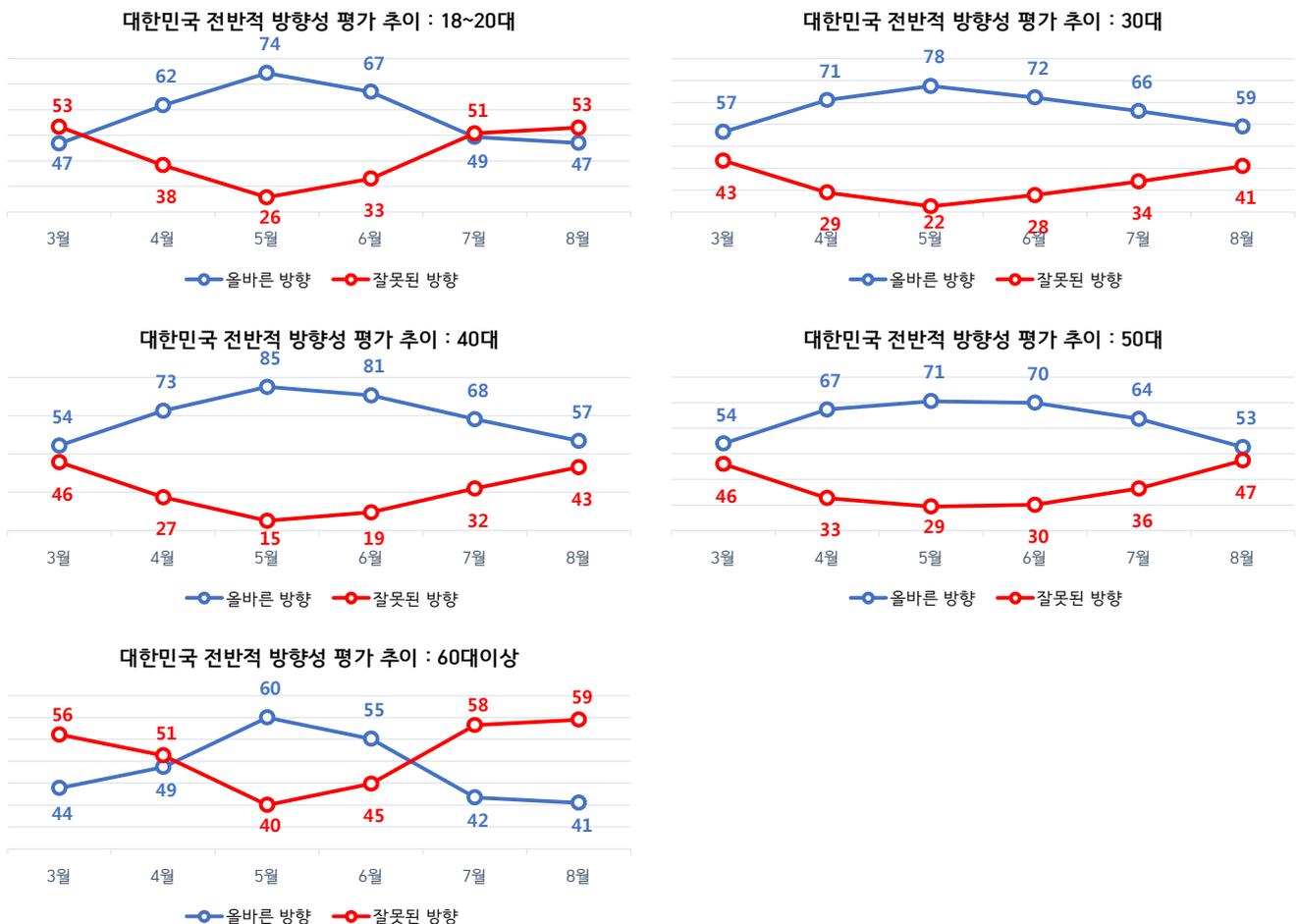


Kstat Point

- ☑ 당초 8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를 전망할 때 '부동산 정책'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지속되면서 부정적 여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었는데,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 됨
- ☑ 9월에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, '잘못된 방향'이 우세할 가능성이 높음
- ☑ 그러나 8월 12일부터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
: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에 성공할 경우 긍정평가가 상승하고, 실패할 경우 부정평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

※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,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평가 하락

- ▶ 18~20대는 이미 7월에 '잘못된 방향'이라는 응답이 우세했고, 8월에도 이러한 흐름이 유지됨
- ▶ 3050 세대는 여전히 '올바른 방향'이라는 응답이 우세하지만 '잘못된 방향'이라는 응답과의 간격이 줄어들고 있음
- 특히 50대는 양자간 격차가 5%p에 불과해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됨
- ▶ 60대이상은 7월에 '잘못된 방향'이라는 응답이 급격히 늘어났고, 8월에도 이러한 응답이 유지됨



Kstat 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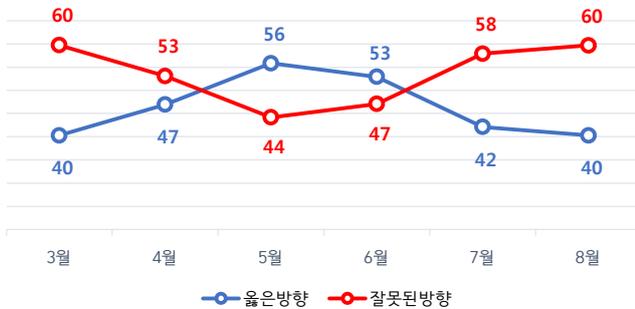
- ☑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는 주로 국가·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와 긴밀히 맞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됨
 - : 특히 국가·사회적 이슈에 대해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경우 '올바른 방향'이라는 응답이 많아지고, 그렇지 못할 경우 '잘못된 방향'이라는 응답이 많아지는 것으로 판단됨
- ☑ 6월까지의 코로나19가 국가·사회적으로 최대 이슈였고,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이 중요한 판단기준이었음
 - : 코로나19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,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이뤄지면서 긍정평가가 우세했음
- ☑ 7월 부터는 부동산 정책이 최대 이슈로 부각되었고,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모든 연령대에서 '잘못된 방향'이라는 응답이 높아졌으며, 18~20대와 60대이상 연령층은 부정평가로 돌아섬
 - :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부동산 정책으로 급격하게 쏠린 것으로 보임
- ☑ 이러한 흐름에 따라 9월의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코로나19 재확산 여부로 판단됨
 - : 부동산 정책도 중요하지만, 코로나19는 생명과 직결된 이슈로 국가·사회적 중요성이 절대적으로 큰 이슈임

경제 방향성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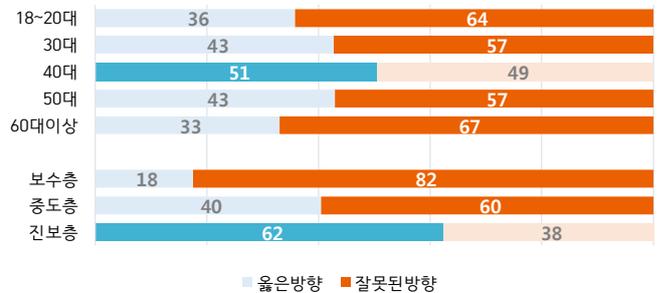
대한민국 경제, '잘못된 방향' 60%

- ▶ 경제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'옳은 방향' 40% vs '잘못된 방향' 60%로 부정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됨
- 7월에 이어 8월에도 '잘못된 방향'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
- ▶ 계층별로 살펴보면 '잘못된 방향'이라는 의견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우세하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△18~20대, 60대이상 △보수층 △인천.경기 △학생 계층에서 높게 나타남
- ▶ '올바른 방향'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계층은 △40대 △진보층 △호남 계층에 불과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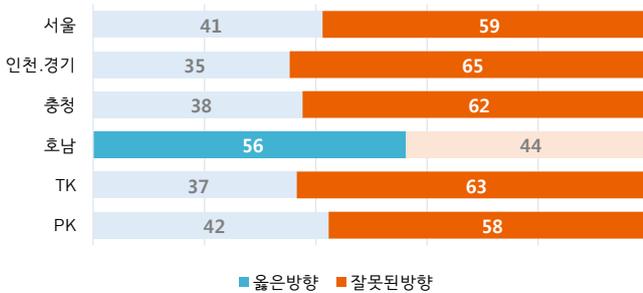
경제 방향성 평가 추이 : 국민전체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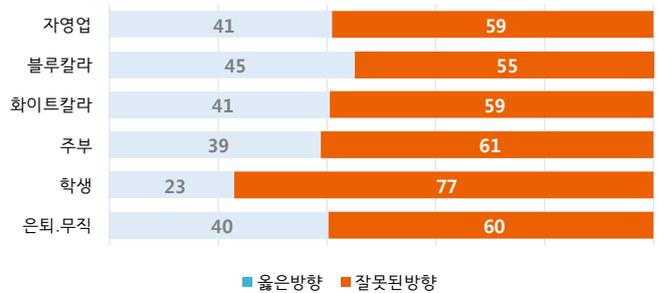
8월 경제 방향성 평가 : 연령별,이념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8월 경제 방향성 평가 : 지역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8월 경제 방향성 평가 : 직업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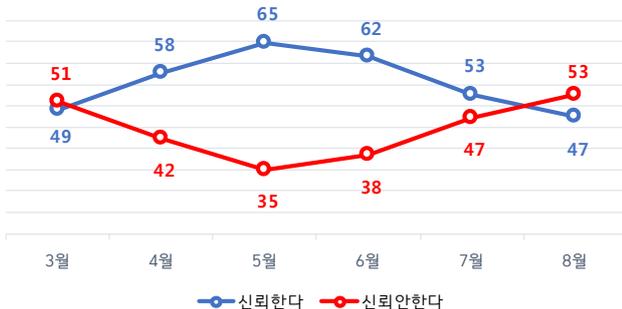
- ☑ 경제 방향성에 대한 부정평가가 거의 모든 계층으로 확산된 데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침체와 소득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겹친 결과로 분석됨
- ☑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에 대해 '올바른 방향'이라고 생각하지만, 경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'잘못된 방향'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계층은 △30대, 50대 △블루칼라, 화이트칼라 계층 등임
 - ▶ 특히 주목되는 계층은 30대와 화이트칼라 계층으로, 이들은 현 정부에 대한 강력한 지지층으로 평가받고 있지만, 경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
- ☑ 9월 경제 방향성 지표 역시 코로나19 재확산 흐름으로 인해 부정평가가 높을 것으로 전망됨
 - ▶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대한 정부의 차단 여부와 무관하게 코로나19 재확산은 그 자체로 경제 방향성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
 - ▶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월 14일 발표한 '한국판 뉴딜 정책'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발표할 경우 부정평가 흐름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은 존재함

▣ 정부 신뢰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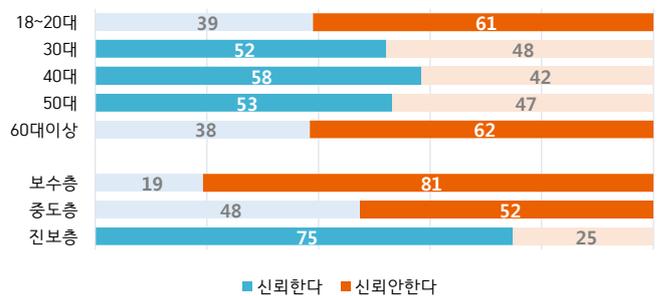
※ 정부 '신뢰 안한다' 53%, 부정평가 우세로 역전

- ▶ 우리 국민들은 4월부터 7월까지 정부를 '신뢰한다'는 응답이 높았으나, 8월에는 '신뢰하지 않는다'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
 - '신뢰한다'는 응답은 47%이고, '신뢰하지 않는다'는 응답은 53%로 조사됨
- ▶ 계층별로는 살펴보면 정부를 '신뢰한다'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△30대, 40대, 50대 △진보층 △호남 △블루칼라 계층임
- ▶ '신뢰하지 않는다'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△18~20대, 60대이상 △보수층, 중도층 △서울, 인천.경기, 충청, TK, PK △자영업, 화이트칼라, 학생, 은퇴.무직자 계층 등임
- ▶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'신뢰하지 않는다'는 응답이 점점 많은 계층으로 확산되는 양상임
 - 6월 조사에서 '신뢰하지 않는다'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△보수층 △충청권 두 계층밖에 없었음
 - 그러나 7월 조사에서는 △18~20대, 60대이상 △TK △자영업, 학생, 은퇴.무직자 등으로 확산됨
 - 이번 조사에서는 △중도층 △서울, 인천.경기, PK △화이트칼라 계층으로 확산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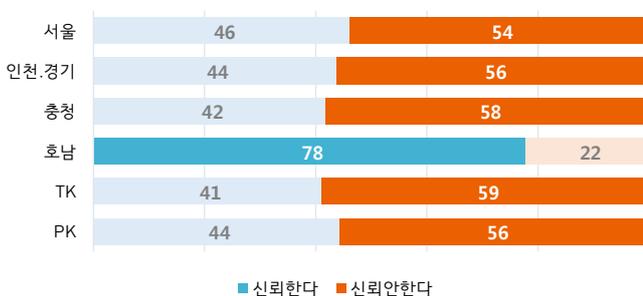
정부 신뢰도 추이 : 국민전체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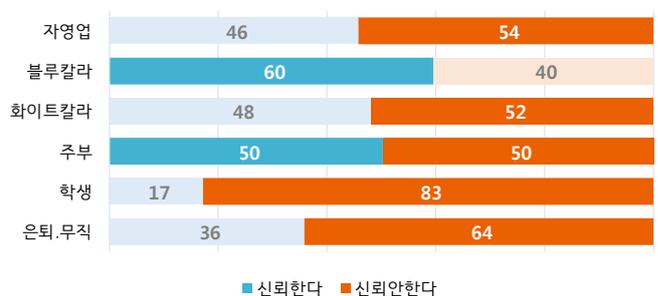
8월 정부 신뢰도 : 연령별,이념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8월 정부 신뢰도 : 지역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8월 정부 신뢰도 : 직업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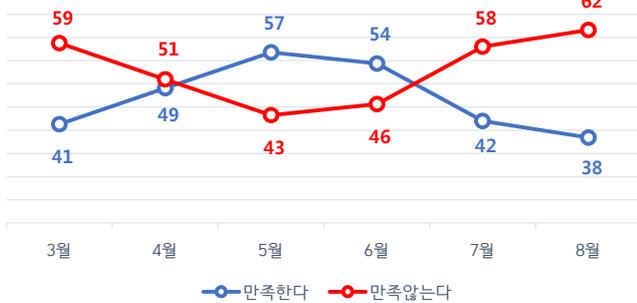
- ☑ 9월 정부 신뢰도는 코로나19 방역 성과에 달린 것으로 전망됨
 - ▶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을 차단할 경우 신뢰도는 상승하고, 그렇지 못할 경우 신뢰도는 하락할 것으로 보임
- ☑ 그간 정부 신뢰도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부동산 정책과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여파는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밀려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임
 - ▶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정부 신뢰도 하락의 '뇌관'으로 존재할 것으로 판단됨

▣ 정부정책 만족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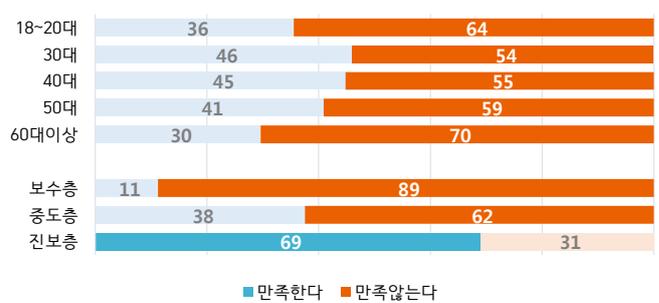
※ 정부정책 '만족 않는다' 여론 더 높아져

- ▶ 정부정책 만족도는 7월에 부정평가로 돌아선 이후 8월에 그 흐름이 더욱 강화됨
 - '만족한다'는 의견은 38%에 그치고, '만족하지 않는다'는 의견은 62%로 더욱 상승함
- ▶ '만족한다'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△진보층 △호남밖에 없음
 - 특히 모든 연령대에서 '만족하지 않는다'는 응답이 우세한 점이 특이함
 - 정부를 '신뢰한다'는 응답이 우세한 30대, 40대, 50대 모두 정부정책에 대해 '만족하지 않는다'는 응답이 우세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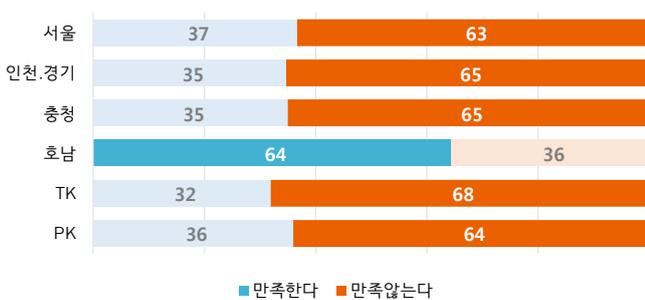
정부정책 만족도 추이 : 국민전체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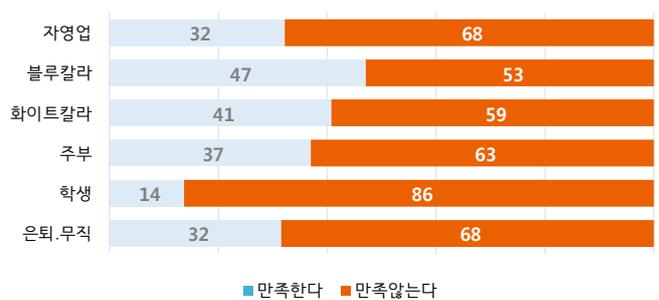
8월 정부정책 만족도 : 연령별,이념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8월 정부정책 만족도 : 지역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8월 정부정책 만족도 : 직업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- ☑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국가·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코로나19가 다시 부각됨
 - : 6월, 7월, 8월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19는 소강국면을 보였음
 - : 확진자가 끊임없이 발생했지만 발생 건수가 낮아 국민적 관심사에서 멀어지면서 코로나19 이슈 영향력은 하락함
- ☑ 코로나19 재부각에 따라 9월 정부 신뢰도 및 정부정책 만족도는 코로나19 대응 성과가 주된 판단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
 - : 코로나19 소강 국면에서 부각된 부동산 정책 등 각종 정책·사회이슈는 급속도로 영향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임
- ☑ 또한 지난 코로나19 확산시 '공공의 적'이 되었던 신천지 교단과 이만희 교주처럼 이번에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가 '공공의 적'이 될 것으로 예상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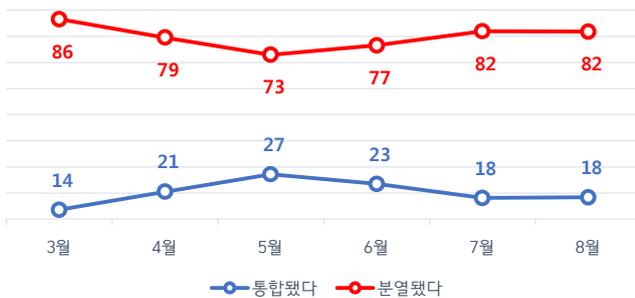
사회통합성 평가

우리 사회 '분열됐다' 82%, 부정평가 강세 지속

- ▶ 우리 사회 통합성에 대한 국민여론은 부정평가 강세 흐름이 뚜렷이 지속되고 있음
- ▶ 8월 조사결과 국민 전체적으로 '분열됐다'는 의견은 82%이고, '통합됐다'는 의견은 18%에 그침
 - 지난 7월 조사결과와 수치가 동일함
- ▶ '분열되어 있다'는 응답이 특히 높게 나타난 계층은 △60대이상 △보수층 △TK △학생 계층 등임
- ▶ '통합되어 있다'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△진보층 △충청 △블루칼라 계층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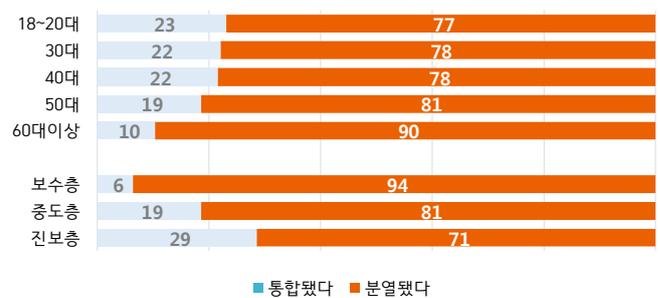
사회통합성 평가 추이 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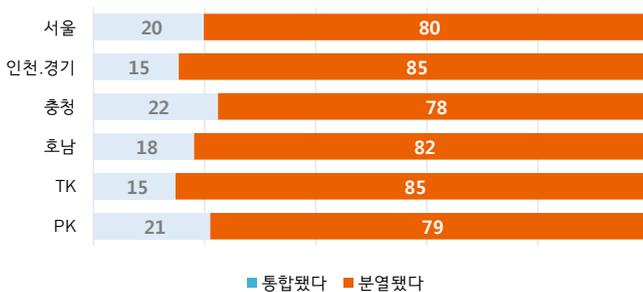
8월 사회통합성 평가 : 연령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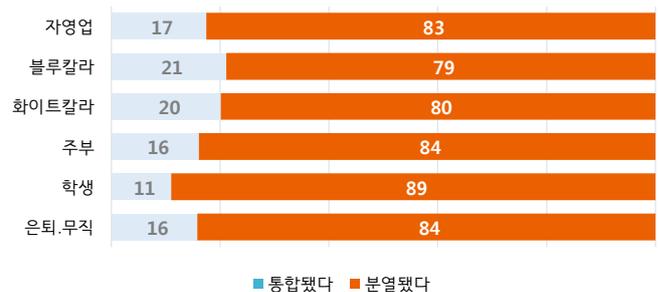
8월 사회통합성 평가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8월 사회통합성 평가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- ☑ 사회지표 조사를 시작한 3월 이후 지금까지 '분열됐다'는 의견의 절대적 강세 흐름이 계속되고 있어 국민분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감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고착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
- ☑ 국가·사회적으로 획기적인 전환점이 없는 한 이러한 국민여론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
 - : '진영논리의 일상화'라고 할 수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권, 언론, 시민사회 등 책임 있는 주체들의 대대적인 태도변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'확실한 계기'가 없는 한 쉽지 않다는 지적임
- ☑ 우리 사회의 갈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1호 ['국민 갈등 의식' 심층 분석]에 수록되어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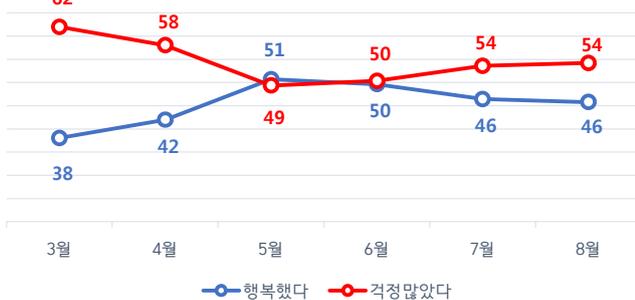
▣ 개인 행복도

※ 어제 하루 '걱정 많았다' 54%, 7월과 동일

- ▶ 국민 중 어제 하루동안 '걱정 많았다'는 의견이 54%로, '행복했다'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남
 - '행복했다'는 의견은 46%로 조사됨
 - 국민 전체적으로 '걱정 많았다'와 '행복했다'는 의견은 7월과 동일하게 나타남
- ▶ '걱정 많았다'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△18~20대, 50대, 60대이상 △보수층, 중도층 △서울, 인천.경기, 충청, TK, PK △자영업, 블루칼라, 화이트칼라, 주부, 은퇴.무직자 등 거의 전 계층에 걸쳐 있음
- ▶ '행복했다'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△30대, 40대 △진보층 △호남 △학생 계층에 그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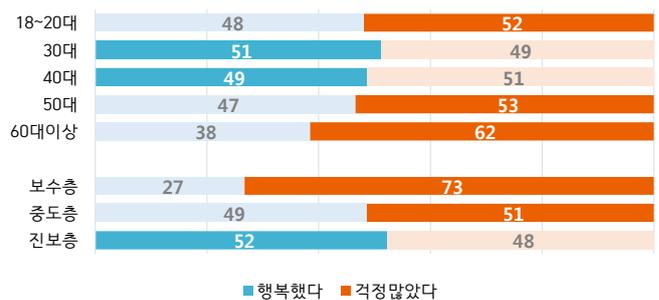
개인행복도 추이 : 국민전체
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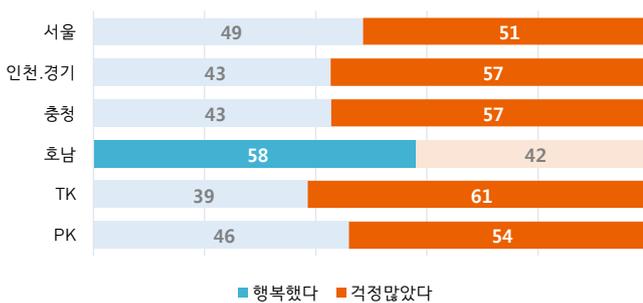
8월 개인행복도 : 연령별,이념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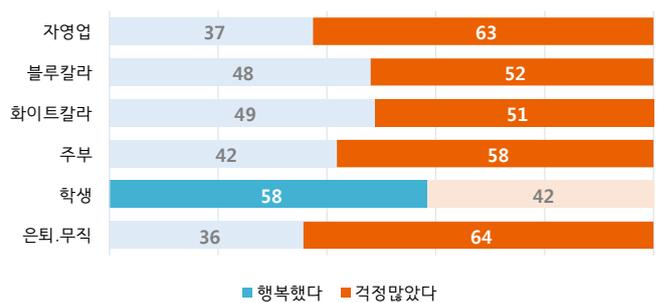
8월 개인행복도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8월 개인행복도 : 직업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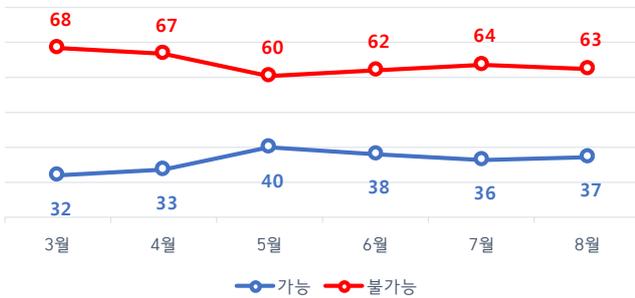
- ☑ 코로나19 장기화는 상당수 국민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면서 국민 개개인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임
- ☑ 9월 개인 행복도 지표 역시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인해 '걱정 많았다'는 응답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
- ☑ 이미 정부는 19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 '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'를 시행했고, 이에 따라 수도권 주민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임
- ☑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따라 3단계로 이행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, 이러한 경우 개인 행복도 지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

㉨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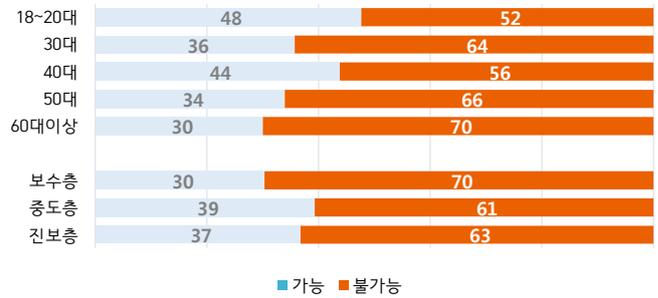
※ 개인 노력으로 계층상승, '불가능하다' 63%

- ▶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상승이 '가능하다'는 의견은 37%이고, '불가능하다'는 의견은 63%로 나타남
- 이는 그간의 조사와 큰 차이 없는 것으로, 국민들은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
- ▶ 7월 조사와 비교하면, 7월에 모든 계층 중 유일하게 '가능하다'는 응답이 우세했던 학생 계층이 이번 조사에서는 '불가능하다'는 응답 우세로 바뀌었음
- 이에 따라 '가능하다'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하나도 없게 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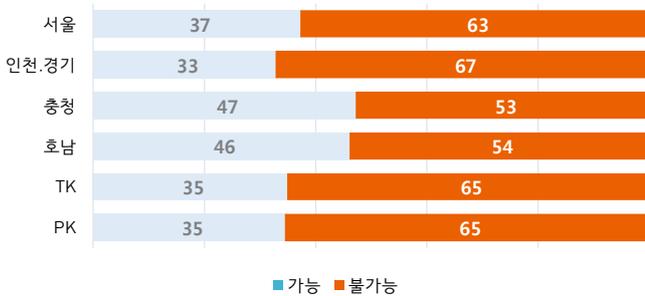
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추이 : 국민전체
(자료:케이스탯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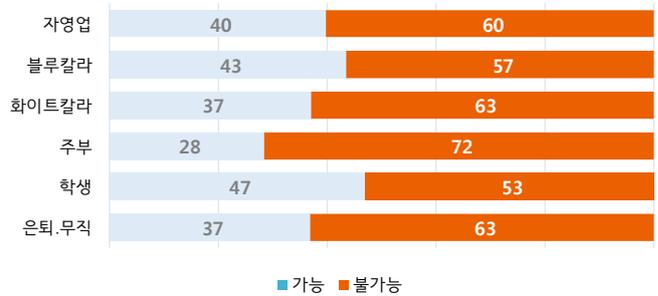
8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: 연령별,이념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8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: 지역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8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: 직업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8.09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- ☑ 최근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부동산 열기는 사라져버린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'반발' 측면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음
 - : 즉, 부동산 열기는 단순히 '투기꾼'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 국민의 참여 속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임
- ☑ 케이스탯 8월 조사에 따르면 주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국민 중 62%는 '주거공간'이라고 응답했고, 33%는 '주거공간이자 투자대상'이라고 응답했으며, 3%는 '투자대상'이라고 응답함
- ☑ 주목되는 지점은 2030 세대의 생각으로 이들은 상대적으로 '주거공간'이라는 응답이 낮고, 대신 '투자대상' 또는 '주거공간이자 투자대상'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
 - : 18~20대의 '주거공간'이라는 응답은 53%이고, 30대는 51%로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
 - : 이는 이른바 '금수저.흙수저'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2030 세대 중 상당수가 '금수저'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재테크를 통해 계층상승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 섞인 노력으로 분석됨
- ☑ 부동산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시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10호 [부동산 관련 국민 의식 심층 분석]에 수록되어 있음

조 사 개 요

조 사 기 간

2020년 8월 6일(목) ~ 8월 9일(일)

조 사 방 법

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

조 사 기 관

케이스탯리서치

표 본 추 출

지역별, 성별,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

표 본 틀

케이스탯리서치 K-패널

유 효 표 본

총 1,134명

표 본 오 차

95%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$\pm 2.91\%p$

가중치 부여방식

지역별, 성별, 연령별 셀 가중 부여
(2020년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)

케이스탯은 조사·통계·컨설팅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,
매월 2회 “**Kstat Report**”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.



- **Kstat Report** 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(Buzz)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.
- **Kstat Report** 는 사회, 경제, 생활,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.
- **Kstat Report** 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가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.
- **Kstat Report** 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.
- **Kstat Report** 는 매월 2, 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.
- **Kstat Report** 정기 구독을 원하시면, 문의 메일(report@kstat.co.kr)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.



Kstat Report 11호(2020.08.27.)는

“**고용불안 및 노후대책에 대한 인식**”을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